

# 단편영화 제작 지원 작품 모집

전주영상위, 올해 5편 내외  
단편영화 선정 2000만원 지원  
전북 거주 도내 대학생 이상 가능

(사)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전주지역의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0 전주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제작 인력 기반확충 및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편 내외의 단편영화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2000만원 내외의 제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만 1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이거나 도내 소재 대학 이상 재학생(휴학생)이면 가능하다. 단, 1인 1편 접수 가능하며 연출자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지역 영화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진행된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총 7편의 단편영화를 지원한 2019 전주 단편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중 김휘중 감독의 '형태'는 지난해 전주영상위에서 진행한 상반기 시나리오스쿨의 수상작 선정작으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공모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0 전주영상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접



지난해 전주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고목' 메이킹 스틸.

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연출자는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fcr.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시나리오를 비롯한 제작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주영상위 이메일(jfcr@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라북도 거주, 만18세 이상의 지원 조건을 만 15세로 낮춰 나이에 상관없이 대중의 문화로 자리 잡은 영화·영상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fcr.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063-286-0421(내선번호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도민 중심 문화예술 행정 서비스 실천

전북문화관광재단, '고객의 소리' 운영... 입구에 소리함 설치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소리'는 재단을 찾는 온·오프라인 방문객 누구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절·불친절 사례, 제안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민원 소통창구다.

재단은 지난 8일부터 전북예술회관 1층 입구에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FAQ(자주묻는질문)'와 '재단에 바란다'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함'은 방문(현장) 민원인이 고객의 소리 카드를 작성해 전북예술회관 1층 입구에 있는 '고객의 소리함'에 넣으면 된다. 접수된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는 월 1회 주기적으로 취합해 관련 부서가 검토한 후 담당자에게 통보,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FAQ는 홈페이지(열린광장-FAQ)와 블로그(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지주 묻는 질문)에 재단의 공모사업, 대관, 홍보 등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업로드해 민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재단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열린광



전북문화관광재단 1층 입구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 (빨간색으로 표시).

장-재단에 바란다)에 개설해 재단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밀 글 설정으로 민원의 익명성도 보장했다.

김정인 홍보팀장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재단이 도민과 도내 예술인에게 열린 소통 창구로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fcr.or.kr)나 홍보팀(063-230-74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배우 고아성,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두번째 주인공에

영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한껏 설레게 할 '무주산골영화제'가 작년에 처음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던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두 번째 주인공을 드디어 공개했다.



초여름 속 영화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액터 NEXT ACTOR'에 배우 고아성을 선정했다.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무주산골영화제와 국내 최초 배우 전문 '백은하 배우연구소(소장 백은하)'가 공동 기획한 배우 특집 프로그램으로, 자기만의 개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배우 한 명을 선정하여 그의 연기 세계를 입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지난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 프

로그램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박정민을 선정해, 관객은 물론 영화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0년 무주산골영화제의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된 배우 고아성은 2006년 '괴물'을 통해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설국열차(2013), 황거: 유관순 이야기(2019) 등 신인 감독의 영화에서부터, 봉준호, 홍상수와 같은 거장 감독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군,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 공모 선정

고창군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생태계가 조성된다.

9일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사업'에 고창군이 최종 5개 지자체(전북 고창군,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에 포함됐다.

고창군은 '문화치유를 매개로 고창의 자원과 문화를 디자인하다'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고창권, 무장권, 흥덕권 등 권역별 문화, 생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치유' 콘텐츠가 구축된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고, 고창문화관광재단 출범 4개월 만에 이룬 경사다. 고창군에선 유기상 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사업 선정에 행정과 재단 모두가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고창군이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한국어 교육 학술서 잇따라 출간

전주대 박현진 교수, '비판적 문식성'·'학습자를 위한 읽기 쓰기 연구' 등

전주대학교 박현진 교수(한국어문학과, 사진)는 최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학술서' 두 권을 잇달아 출간해 화제다. 이번에 출간된 두 권의 책에는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과 그 실질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한국어 교육과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서정시화)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을 제안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흥미를 북돋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쓰기 연구(여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를 읽고 쓸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각종 사례를 통해 제시해 대학 수준 학습자를 가르치는 데 실질



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박 교수의 이번 학술 서적은 한국어의 학술적 활용 및 세계화 추세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연구 성과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정책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